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키치미술의 부적합성 원리를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성모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Kitsch Art Incongruities  
—Focusing on the Holymother—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임 보 나

# 키치미술의 부적합성 원리를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성모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Kitsch Art Incongruities

—Focusing on the Holymother—

지도교수 이 정 석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임 보 나

임보나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목 차

요 약 .....	i
표 목 차 .....	ii
도 목 차 .....	iii
작품목차 .....	iv
<b>I. 서 론 .....</b>	<b>1</b>
1. 연구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b>II. 이론적 배경 .....</b>	<b>3</b>
1. 키치미술과 부적합성 .....	3
1) 키치(Kitsch)의 정의 .....	3
2) 키치미술안의 부적합성의 개념 .....	4
3) 부적합성의 원리를 이용한 작품사례 .....	7
2. 성모상의 일반적 고찰 .....	11
1) 종교적 상징성 .....	11
2) 성모상의 상징성과 의미 .....	13
3) 종교적 의미를 이용한 작품사례 .....	18
3. 예술에서 나타난 용도와 표현 .....	21
1) 도자공예의 용도와 표현 .....	21
2) 작품사례 .....	23
<b>III. 작품제작 및 해설 .....</b>	<b>26</b>
1. 작품계획 .....	26
2. 제작과정 .....	27
3. 작품해설 .....	31
<b>IV. 결 론 .....</b>	<b>37</b>
참고문헌 .....	38
영문초록(Abstract) .....	40

## 요 약

현대미술은 대중문화로 정리 될 만큼 이 시대의 중심은 대중이다. 현대사회는 그동안 소외 시 되어오던 것들이 주체로 부상하면서 삶의 영역에서 저급한 것들로 취급되던 부류들도 현대미술에서 분출되고 있다. 대중문화와 결부된 현대미술은 그동안의 권위를 넘어서서 삶의 곳곳에 투입되거나 대중문화의 단면을 전시의 형태로 옮겨 놓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키치미술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대중문화의 시사점을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성모상이라는 상반된 매개체와 접목한 도자 영역의 용도와 표현에 대하여 키치미술의 관점을 통해 연구하고 본인의 조형언어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키치미술의 정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키치와 현대 미술을 고찰하기 이전에 일반적 특징들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 내포되어있는 부적합성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키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모상이라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품과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앞서 연구하였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작품제작에 관련한 계획과 세부적인 제작과정을 기술하고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에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대중적 호소력을 갖는 키치의 특성들과 개념적 정리를 구축하여 도자예술과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세분화하여 본인 작품을 통해 연결시켜 알아보고 미술영역에서 키치적인 특성을 지닌 도자예술은 더 이상 소외되어야 할 부류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하였다.

## 표 목 차

<표1>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가 규정지은 키치의 원리 .....	4
<표2> 키치원리의 예 .....	5
<표3> 본 연구에 있어 표현된 상반된 구조 .....	26
<표4> 성모상 이미지 비교표 .....	28
<표5> 소성 그래프 .....	29

## 도 목 차

<도1> Takashi Murakami 「Superflat Flowers」 2010 .....	7
<도2> Takashi Murakami 「Miss coco」 1997 .....	7
<도3> Jeff Koons 「Balloon Dog Yellow」 1992 .....	8
<도4> Jeff Koons 「Hanging Heart」 2009 .....	8
<도5> Claes Oldenburg 「Spoonbridge and Cherry」 1998 .....	9
<도6> Claes Oldenburg 「Shuttlecocks」 1994 .....	9
<도7> 손동현 「왕의 초상」 2008 .....	10
<도8> 손동현 「막강 이인조 슈벡 앤 톱키도」 2006 .....	10
<도9> 경배되어지는 성모상 .....	13
<도10> 카라카스 대성당의 아름다운 성모상 .....	13
<도11> 성모 성심상 .....	15
<도12> 파티마(Our Lady of Fatima)의 성모상 .....	15
<도13> 과달루페의 성모상 .....	16
<도14> 은혜의 성모상 (뒤뚱박의 성모상: 기적의 메달의 성모) .....	16
<도15> 루르드(Our Lady of Lourdes)의 성모상 .....	17
<도16> 선진 스님 「똥독, 부처」 2009 .....	18
<도17> 선진 스님 「둥이이전」 2009 .....	18

<도18> 유의정 「Be Dyed」 2001 .....	19
<도19> 유의정 「미소」 2011 .....	19
<도20> 김은진 「두통의 마리아」 2005 .....	20
<도21> 김은진 「이빨을 드러낸 성모 마리아」 2005 .....	20
<도22> Vilma Villaverde 「Lady」 2012 .....	23
<도23> Vilma Villaverde 「Waiting」 2011 .....	23
<도24> 김하운 「Alice in Wonderland」 2009 .....	24
<도25> 김하운 「Cutlery Chandelier」 2009 .....	24
<도26> 권진희 「Concoptual Core-1」 2010 .....	25
<도27> 권진희 「Concoptual Core-2」 2010 .....	25
<도28> 부적절한 성모상 연출을 위한 이미지표 .....	27

## 작품 목차

<작품 1> Transform Holymother-1 .....	31
<작품 2> Transform Holymother-2 .....	32
<작품 3> Transform Holymother-3 .....	32
<작품 4> Transform Holymother-4 .....	32
<작품 5> Transform Holymother-5 .....	34
<작품 6> Transform Holymother-6 .....	35
<작품 7> Transform Holymother-7 .....	36

# I. 서론

## 1. 연구목적

오늘날 도자예술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현대인들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담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해왔지만 여전히 호전적이지 않은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현대의 미술에서는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이 예술의 형태를 빌려 나타나게 되며 상품과 예술의 결합은 스타작가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하류문화로 분류되었던 부분이 주류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하위문화와 주류미술의 경계를 허물기도 한다. 소비문화의 산물이 예술로 변화되거나 이러한 예술가들의 행보는 대중에게 표현될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상호협력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키치미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현대미술의 위치와 쟁점들을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며 키치는 예술이 독립된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표현하고 만들어 내는 작가의 감수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키치미술은 저급하다는 통속적 논의 하에 일시적인 쾌락만을 강조하는 예술로 격하되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대중과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것이 하나의 지배적인 힘이 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키치를 더 이상 격하할 수 없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치미술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부적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부적합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현대미술 저변에 깔린 도자 예술에 대한 긍정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 미술, 대중과의 소통의 문제를 파악하며 부적합의 원리를 통한 도자 예술의 대중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작품에 담으려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미술에 나타난 키치가 극소수의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 없이 시대와 관객이 소통하고 그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앞으로 인식 되어져야 할 도자예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키치 미술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고 키치 미술안의 여러 가지 원리 중 ‘부적합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키치 미술에서 나타나는 부적합한 특성을 대표하는 작가의 성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적합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형태적 특성에 관해 참고 문헌과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따른 작품의 모티브는 예술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의 상징성과 그 안에서 독자적인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모상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도자 예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대비적 부적합성의 표현은 공예적인 영역 안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이는 키치가 사물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존재방식의 하나의 유형이며 특히 대중 소비사회에서 상품의 존재방식으로 제품의 키치화 현상은 여러 가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중층적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모상과 시각적,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어 표현될 수 있는 공예적 사물 혹은 사물의 일부를 채택하여 상반되는 이미지와 결합시켜 재해석함으로써 본인의 조형의지에 따른 표현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예의 실용성과 미적가치, 사물의 고유성에 대한 부적합성의 관계성을 도자예술적 측면으로 연구함에 있어 작품제작의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조형화하여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키치미술과 부적합성

#### 1) 키치의 정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배경이 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키치문화는 발생하게 된다. 키치라는 말은 1860년 무렵 독일 남부에서 ‘긴어모으다, 아무렇게나 주워 모으다’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던 말이며 보다 넓게는 ‘남은 가구를 주워 모아 새로운 가구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키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Verkitschen 이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속여 물건을 강매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키치라는 말속에는 원래 ‘윤리적으로 부정함’, ‘진품이 아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키치는 순수미술과 고급미술에 반하는 타락하는 예술을 총칭하는 미술용어로 출발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량 소비사회에서 산물을 소비하는 대중의 심리, 태도, 사고가 소비과정에서 어떻게 개입되어졌는가 하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키치는 의미의 윤곽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외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한층 본능적인 심층에까지 도달하는 내포적인 현상으로, 먼저 인간이 사물과 맺는 관계의 한 유형이다. 이에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관계, 하나의 양식을 키치로 이해하는 것이 키치에 대한 더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산물로써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산물과 관계하는 태도로 키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에서와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키치를 특정한 시대에만 드러나는 양식이 아닌 사물과 인간이 관계하는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키치가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행할 수 있음을 암시 한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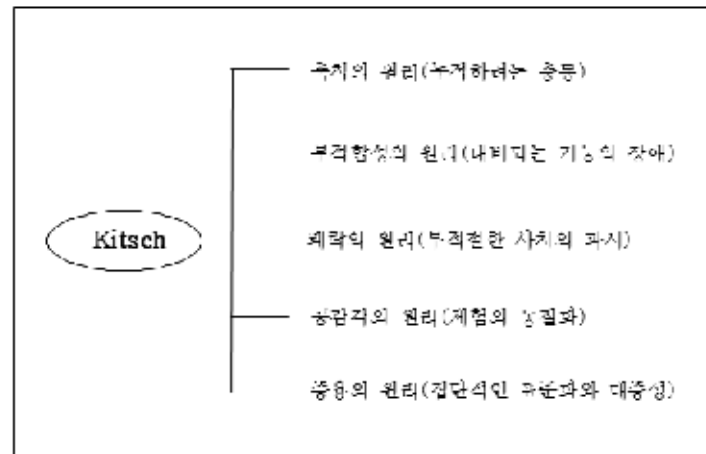
그간 내용상으로 키치는 통속적인 사회현상으로 진품적 가치나 효과를 모방하는 태도와 그러한 산물로 존재하였으나 이는 인간 존재방식의 하나의 유형으로 사회적 기능이 사물 자체에 부과된 것이다. 그러므로 키치는 예술의 국한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모든 사물과 관계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진 왜곡된 현실 묘사로 존재한다.<sup>2)</sup>

1) 아브라함 몰트(Abraham Moles) 「앞의책」

2) 오창섭 「키치현상을 통해 본 사회문화적 기능」 1997

## 2) 키치미술평의 부적합성의 개념

키치를 현대문화의 주요 산물로 의미 부여하며 이론을 적립한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sup>3)</sup>는 키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표 1>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가 규정지은 키치의 원리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지적하는 부적합성이란 키치미술평의 여러 가지 원리 중 하나인 ‘부적합성의 원리’로 표현된다. 부적합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키치적 사물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본래의 기능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어 주제의 불균형을 의도하기도 한다. 즉, 사물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며 예술의 영역에서의 키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3) 아브라함 몰르 (Abraham Moles 1920-1992)

독일의 철학자, 미술평론가. 키치는 의미의 윤곽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외시적’ 현상이라기보다 한층 본능적인 심층에까지 도달하는 ‘함축적인 현상’이라 주장함

<p><b>부적합성의 원리</b></p>	<p>크리스탈로 만든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지 않듯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치가의 얼굴이 묘할 정도로 작게 그려져 있는 병마개처럼 크기의 불균형을 의도하기도 한다.</p>	 <p>크리스탈로 만든 지떨이는 기능성보단 심미성을 강조한 부적합성의 원리를 보여준다.</p>
<p><b>축척의 원리</b></p>	<p>키치는 '좀 더 많이' 라는 충동과 수집열을 과시하는 축척의 원리를 보여준다. 침대에 쓰인 금도금 장식이러던가 고가의 재질로 제작된 그릇은 과시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집적해서 돋보이고자 하는 축척의 원리의 예이다.</p>	 <p>형식, 내용, 기능 등의 과시를 통해 스스로를 눈에 띄게하는 것.</p>
<p><b>쾌락의 원리</b></p>	<p>'편안하게 살자' 라는 생각은 쾌락의 원리의 핵심이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에 가까운 마구잡이식으로 선택하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사물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거나 자각적으로 충동을 자극한다면 별 숙고 없이 선택하게 된다.</p>	 <p>기능보다는 심미성에 중점을 둔 편더 모양 스피커.</p>
<p><b>공감각의 원리</b></p>	<p>공감각의 원리를 보여주는 키치적 사물은 동시에 가능한 많은 감각 기관을 지향한다. 자명종시계, 금박이 씌워진 포도주병, 향수 냄새가 나는 불펜 등 하나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혼합하여 대중을 유인한다.</p>	 <p>한 가지에 두 가지 기능을 혼용함으로써 다중의 감각으로 대중을 유인하는 공감각의 원리.</p>
<p><b>중용의 원리</b></p>	<p>키치는 또한 모두를 조금씩 갖되 하나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중용의 원리를 갖고 있다. 이는 미적인 영역, 기능의 영역, 정치, 종교의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중간적인 위치를 독점하고자 한다.</p>	 <p>모든 영역의 이권적인 것들을 혼합하여 절단적 표준화라는 중간적 위치로 위치시키는 중용의 원리.</p>

〈표2〉 키치원리의 예

이에 부적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은 원래 목적 했던 기능을 달성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유효성에 대해 양자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순수함을 표현 할 때에도 비순수함을 순수함으로 바꿔 표현한다. 크기의 불균형, 차원의 위화감 같은 것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상호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무엇 한 가지만으로는 존재 가치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본질 그 자체가 희박해 가고 있으므로 여분의 것, 장식적인 여러 요소 들을 차용하게 된다. 4)

---

4) 아브라함 몰트 「키치란 무엇인가」 1994

### 3) 부적합성의 원리를 이용한 작품사례

#### 하위문화와 예술 세계의 접목



<도1> Takashi Murakami 「Superflat Flowers」 2010



<도2> Takashi Murakami 「Miss coco」 1997

다카시 무라카미(Takashi Murakami)는 오타쿠 문화의 키워드인 애니메이션과 만화 같은 평면적 이미지를 그만의 회화양식을 지칭하는 '수퍼 플랫'으로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세계화 된 시대에 서구문화를 기준 없이 받아들인 격변한 일본사회에 대해 비판한다.

그의 작업에는 몇 가지의 Mr.DOB 나 웃고 있는 꽃처럼 특징적인 캐릭터가 수없이 가득차거나 반복되어 시각적 환상으로 이끄는데, 이는 무수한 문화가 부유하는 현대사회의 환각적인 모습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프쿤스(Jeff Koons)는 현대문화의 키치적 요소들을 고급 미술화 시킨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와 대졸 매체의 이미지를 차용해 나무, 대리석, 유리, 스테인리스 등을 사용하여 예술로 재연 하고 있다.

강아지, 인형, 꽃과 같은 동심을 모티브로 삼아 그것의 크기와 재료를 바꾸는 방식으로 조형물을 만든다. 제프쿤스는 특히 반사되고 반짝이며 가벼워 보이는 비닐, 유리, 스테인리스 등 현대사회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소재를 사용한다.



<도3> Jeff Koons 「Balloon Dog Yellow」 1992



<도4> Jeff Koons 「Hanging Heart」 2009

이 사물들은 더 이상 키치와 키치가 아닌 것의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혼연 일체이다. 키치적인 산물과 키치적인 발상과 키치적인 주제 속에서 키치적인 것은 곧 예술 작품이며 예술 작품은 키치와 동의어가 된다.

미술과 상품은 하나로 되며 고급과 키치는 상품 가치를 통하여 하나로 수렴한다. 쿤스의 작품은 키치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품과 키치간의 관계를 내파시킴으로써 키치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고 극대화 시킨다. 5)

5) 이형일 「키치로 현대미술론을 횡단하기」 2011

미국의 조각가 클래스 올덴버그는 관객과 일상적 환경 속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작품을 시도한다. 그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과감하고 크게 만들어 그의 대비되는 일상의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하여 관객의 심리에 충격을 주고 쇠로 만들어진 즉 경질기계 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재해석하여 해학적인 작품 또한 선보인다.



<도5> Claes Oldenburg 「Spoonbridge and Cherry」 1998      <도6> Claes Oldenburg 「Shuttlecocks」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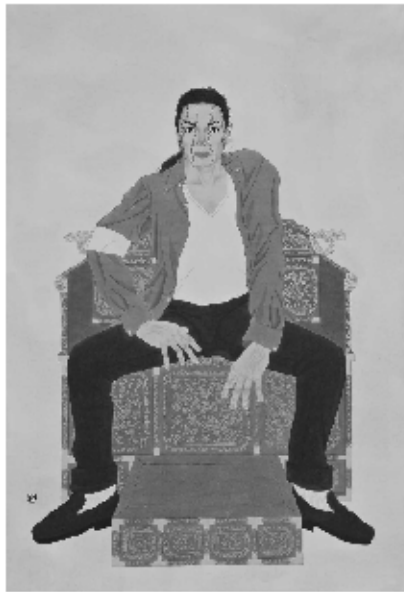
주변에 흔히 존재하지만 흥미의 대상이 아니던 일상적인 사물, 전기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경질기계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모조한 해학적 작품을 전시하는 발상은 모두 그의 일관된 방법이며 작품의 재료, 질감에서 놀라움을 일으킨다.

또한 그 소재들을 실물 크기가 아닌 거대한 크기로 변형시켜 관객들에게 제시하여 우리는 그의 작품을 바라볼 때 일종의 괴리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는 작품이 사물로서가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영역 안에 존재하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 지도록 기능하는 영역을 없앴으로써 거대하게 과장된 사물이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로 임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그 당혹스러움은 굉장히 낮은 것이면서도 아주 낮은 어떤 대상을 대하고 있는 이질적인 느낌에서 파생된다.

뒤샹(Marcel Duchamp)이 "샘"(Fountain)이라는 이름의 변기를 화랑으로 도입하여 작품화하였을 때 그 변기는 더 이상 실용적인 의미가 아닌, 제거된 낯설은 물건이 되었던 것처럼 올덴버그의 작품에서도 그러한 의미탈락의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물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관객으로 하여금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전통적인 조각기법으로 그 소재들을 작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한듯한 부드러운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동양 화가 손동현은 할리우드 영화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나 팝의 아이콘인 마이클 잭슨을 전통적인 한국화의 초상화 기법으로 그리거나, 유명 서양 브랜드의 로고, 나이키, 아디다스, 버거킹 등을 민화의 문자도 형식으로 그린다. 일종의 아이콘이나 상징으로 변화된 동시대 대중문화의 캐릭터들은 절대 권력자나 존경 받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전통적 초상화 기법으로 표현된다. 그의 작품은 이질적이고 팝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적 한국화로 한국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도7> 손동현 「왕의 초상」 2008



<도8> 손동현 「파강 이인조 슈테 앤 동키도」 2006

“한 존재의 물리적인 요소가 지닌 문화적 성질이 이질적으로 공존하는 상황, 그 모습이 내게는 아름답다. 그러한 장소에서 문화는 교류, 이중 교배하는 순간을 갖게 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재료, 기법과 소재, 주제의 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으로 공존하는 나의 회화 역시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 혹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모습을 추구한다.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을 우리 전통 채색화로 재현해 내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관람객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6)

6) 손동현 「작업노트 中」 2010

## 2. 성모상의 일반적 고찰

### 1) 종교적 상징성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지닌 상징은 말할 것도 없이 신' (God) 이라는 개념이다. 다른 종교적인 상징들이 그렇듯이 그 개념 역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들과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수억의 사람들의 생활과 수천의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초월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일깨우고 활성화 시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체계를 조직하고 키워나갔다.

이러한 개념화의 작업은 사실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긴 역사를 지닌 것이지만 특별히 신의 개념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특징적으로 발전 되었으며 그 곳에서 시작되어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지역의 문화 속에 침투 되었던 이슬람교와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sup>7)</sup>

인간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종교적 상징들이 그에게 가지는 의미이다. 종교적 상징들은 그들 고유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 생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런 과정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종교적 상징들은 다양한 효과를 내었고 인간이 상징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수행 하도록 하는 데에도 종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교 체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다양한 길을 표현하였고 상징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종교적인 상징은 단순히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표현인 것이다.<sup>8)</sup>

종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한다. 종교가 가리키는 그 무엇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우리는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징을 통해 이해 할 수 밖에 없다.

7) 김승혜 「종교학의 이해」 2000

8) 류미애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석사학위논문)」 2001

비감각적 실체를 다루는 종교는 상징, 몸짓, 향기, 음악, 사물, 음식 등의 감각적 수단을 이용하여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한다. 따라서 음악, 춤, 미술 등의 예술은 종교적인 의례 행위와 함께 형성 되었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sup>9)</sup>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현대 회화나 조각은 종교와 예술과의 상호 작용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와 예술이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항상 상호 교환되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종교적인 주제는 예술의 소재가 되어왔고 예술 또한 종교적인 상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

9) 폴 발타 외 윤정임 역 「세계의 종교 이야기」 1989

## 1) 성모상 상징성과 의미

상징이란 인간 본질의 심오한 표현이다. 기독교에서의 십자가, 불교에서의 원, 만다라, 심우 등도 우리 삶의 진리를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이다. 상징은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 있어 왔으며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상징에 대한 연구는 인류 자체에 대한 연구이며 오랜 문명에선 상징의 힘을 인식했고 미술, 종교, 문학, 영화 등의 이야기 속에 자주 제시된다. 상징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나 말로 완전히 담아 낼 수 없는 깊은 내면적 힘을 나타내는 자연 발생적 표현이다.<sup>10)</sup>



<도9> 경배되어지는 성모상



<도10> 카라카스 대성당의 아름다운 성모상

이에 성모상이 가지는 상징 자체는 독자적이다. 확고한 여성성을 대변하며 숭고하고 고위한 상징성은 동서양 남녀노소를 막론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모상의 존재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찬미되어지며 아름답다.

또한 성모상이라는 종교적 상징은 단순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성모는 선천적으로 천사와 같은 점손의 사상으로 태어나 오직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 소녀의 몸으로 예수 잉태를 겸허히 받아들인 사상의 결정체이다.

10) 데이비드 폰테너 「상징의 비밀」 2001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느님(神)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 여인으로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인들만의 표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에 독자적인 이미지로 존재함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모상 이미지의 초월적인 기능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깊이 감추어져 있던 인간정신이 중핵으로부터 계시를 이끌어내며 작동하는 것이다. 이때 깨닫는 계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사로잡아 인격의 변환을 이루게 하고 좀 더 성숙한 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모상의 외형적 이미지를 차용 하였으며 성모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도11> 성모 성심상

성모 성심이란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성심과 긴밀히 결합 되어 있는,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성모 성심 공경은 예수 성심 공경과 성격이 매우 다르게 표현된다. 예수 성심 공경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나 인간은 배은하기 때문에 모욕된 사랑에 대하여 보속하는 사랑이 그 목적 이지만 성모 성심에 있어서는 하느님과 예수께 대한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그 목표인 것이다.



<도12> 파티마(Our Lady of Fatima)의 성모상

파티마의 성모(Our Lady of Fatima)란 :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 6회에 걸쳐 발현(發顯) 한 성모님을 말한다. 손을 합장한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이고, 성심이 드러난 모습은 금빛의 장식이 있는 흰 옷에 발치 옷자락에 별이 있고 구름을 밟고 나무위에서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도13> 과달루페의 성모상

과달루페의 성모상이란 멕시코 테페악에서 발현한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 성상으로 과달루페 성모상의 상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얼굴 : 혼혈의 모습으로 미소와 자비를 베푸는 겸손하신 모습
- 망토 : 망토는 하늘을 상징하며 그 위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날자를 상징하는 위치에 정확한 별자리가 있다.
- 치마 : 분홍빛은 땅을 상징하며 그 위에 신의 색인 금빛으로 여러 무늬가 있고 다른 부분과는 다른 성모님 배의 중심부분 네 개의 꽃잎은 동서남북으로 구원하시는 곧 태어나실 하느님을 상징한다.
- 배경의 붉은광채 : 성모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며 그빛을 통하여 모든 것은 거룩하고 올바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뜻.

- 발 밑 검은 초승달 : 강인한 보름이 아닌 초승의 모습으로 작고 겸손한 자세로 곧 낳으실 예수그리스도를 섬기고 받든다는 뜻.
- 검은띠 : 지체높은 여성들만 쓸 수 있는 검은띠로서 보는 사람마다 존경하고 보호해주며 신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상징한다.



<도14> 은혜의 성모상 (뒤쳐박의 성모상: 기적의 메달의 성모)

원죄 없이 잉태되신(무염시대) 성모님으로서 보통 자비 또는 은혜의 성모님이라 한다. 성모님의 모습은 푸른 색 망토에, 양손을 벌린 채 지구본위에 서서 뱀을 밟고 계신 모습이며 성모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신 이유로는 지구본(전 세계, 인류를 상징)을 향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구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루르드의 성모님이란 1885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회에 걸쳐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말한다. 마지막 발현 때 성모는 자신을 일컬어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발현이 있기 4년 전 교회의 교도권이 선포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가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성모상의 특징은 흰옷에 푸른 띠를 걸치고 양손을 합장하고 있으며, 발치 에는 장미가 심어져 있고 샘물이 흐르는 모습이다.

〈도15〉 루르드(Our Lady of Lourdes)의 성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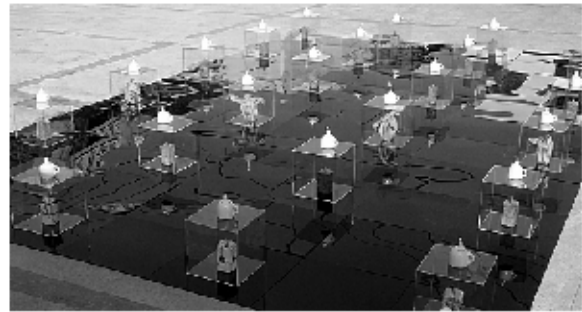


### 3) 종교적 의미를 이용한 작품사례

종교 설치 미술가인 선진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 행법 중 하나인 화두를 근거로 참선하는 ‘간화선’을 현대적인 조형 예술로 표현해 실험적으로 제시한다. 선진 스님은 평소 난해하게 여기는 간화선의 참된 의미를 일반 대중과 함께 되새겨 보기위해 이러한 작업을 계획하는데 ‘불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오브제에 다양한 색을 입힘으로써 기존의 사물이 갖고 있던 관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도16> 선진 스님 「공독, 부처」 2009



<도17> 선진 스님 「동일이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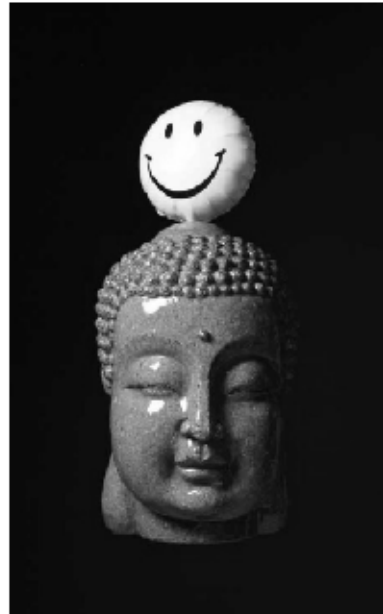
이로 인해 예술적 차원에서 복제된 레디메이드 불상을 사용함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적 상징성 자체를 애매하게 변화 시킨다. 이는 복제된 레디메이드 불상이 전통적 가치를 지닌 불상의 유일성을 해체 시키면서 종교적 불상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모멘트를 제공해 주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한다. 작업은 이처럼 순수한 예술 작품 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예품이나 키치(Kitsch)적으로 보이는 작품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준다.

유의정 작가는 종교적 상징에 대비 되는 것들을 혼합 시키며 현대시대에 구속되지 않는 다양한 장르를 표현 하고자 한다.



<도18> 유의정 「Be Dyed」 2001



<도19> 유의정 「미소」 2011

이념 대립의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공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이질적인 것 또는 낯선 타자와의 관계 맺기나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가 ‘문화변용(文化變容)’이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 하였을 때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 형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는 이 말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러한 혼성작용은 예술 장르 중심의 제도권 문화에 거슬러서 탈 장르의 열린 문화의 장을 구축하려 하며 더 나아가 문화 차원에서의 제3의 길이라 불리고 있다. 11)

11) 유의정 「작업노트 中」 2011

화가 김은진은 동양적 회화방식을 현대화하는 작가로 종교를 주요한 회화적 모티브로 삼아 탐구해 나간다. 주제는 ‘나쁜 아이콘·The Wicked Icon’으로 가톨릭의 각종 제의와 성상들을 비틀고 왜곡한 그림들은 언뜻 종교의 성스러운 본성이면에 담긴 인간의 탐욕과 폭력을 빚낸 것이다. 한 손에는 피를 묻히고 다른 손에는 순결한 흰색 면장갑을 끼고 있는 성모상은 분열된 자아를 드러내듯 성모의 얼굴을 파편화했으며 6등신의 아기 성상은 루이비통의 로고가 선명한 가운을 걸치고 있다.



〈도20〉 김은진 「두종의 마리아」 2005



〈도21〉 김은진 「이빨을 드러낸 성모 마리아」 2005

기복과 주술성을 내세운 민간 신앙에 이르면 성스러움으로 가려진 진실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죽음, 희생, 구원, 치유라는 종교의 본유적인 성향을 이미지화 하였던 반면, 종교의 성스러운 본성들이 인간의 탐욕, 폭력과 만나면서 변형된 이중적이고 혼재된 모습에 주목한다. 성상을 왜곡하고 비틀어 그림으로써 종교가 가지는 절대적 성스러움에 의문을 던진다.

### 3. 예술에서 나타난 용도와 표현

#### 1) 도자공예의 용도와 표현

공예는 당초 용도를 가지는 것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산업이 아닌 근대 작가에 의해 표현 공예 작품이 탄생하게 되면서 공예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공예가 용도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완성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게 되며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에 기반 한 제작과정과 제작자의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는 회화나 조각에는 없는 공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미술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sup>12)</sup>

이로 인해 공예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용도에서 용도를 가진 입체로, 그리고 입체조형, 평면조형으로의 발전양상을 보이게 된다.

소변기가 마르셀 뒤샹에 의해 예술작품 ‘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들이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갔다. 1917년 어느 날 한 하드웨어 상점에서 구입한 변기에 리처드 머트라는 이름을 서명한 뒤 뉴욕 앙데팡당전에 출품한 후 심사위원들로부터 배척당한 이 작품은 현대미술의 향방을 결정한 미술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작품은 여전히 현대미술(Modern art)이 얼마나 기괴하며 현학적인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품의 오리지널리티에 반기를 든 뒤샹에게 있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평범한 사물을 선택하여 전시함으로써 물건의 실용성은 사라지고 그저 ‘사물’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선택행위 즉, 아이디어인 것이다.<sup>13)</sup>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수공적 기술의 재현행위가 아닌 선택한다는 정신적 행위가 예술가의 본질이라는 그의 이론은 기존 미술에 도전하는 개념미술의 기초를 이루었다.

12) 청주 공예 국제비엔날레 「현대공예의 용도와 표현」 2013

13) 최정은 「뒤샹의 섹슈얼리티」 2007

화장실에 놓여 있을 때는 변기이지만 예술가에 의해 선택되어 전시장에 놓여 있을 때의 변기는 원래 목적과 실용성이 상실되고 하나의 사물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공예적 기능을 떠나 오브제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뒤샹이 우리에게 보여준 ‘샘’의 미학이다.

## 2) 작품사례

빌마 빌라베르데(Vilma Villaverde)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도예작가로 위생도기를 오브제로 활용하여 인체 조형작업을 선보이는 작가이다. 그녀의 이러한 작업 방식은 1987년 지인에게서 선물 받은 비데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사진 속 가족이나 친구들을 모델로 작업하는 방식으로부터 위생도기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작업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오브제 작업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작업들로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들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신체의 과감한 생략이다. 엉덩이 몸통이나 어깨에서 부터 사라진 팔뚝, 갑자기 툭 튀어나온 손과 발은 공포스럽거나 섬뜩해 보이기보다 오히려 조형적으로 그녀만의 완성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특징이 되었다.



<도22> Vilma Villaverde 「Lady」 2012



<도23> Vilma Villaverde 「waiting」 2011

제작된 작품들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으로 평면속의 인물들을 3차원의 공간속에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한 작품들이다. 사진속의 인물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2차원의 이미지를 해석하였으며 해석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공간속에 인물의 형상을 재구성하였다. 위생도기를 오브제로 활용한 작품들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다양한 창작물로 변신하여 관람자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준다. 위생도기는 선택에 따라 머리, 목, 가슴, 몸통, 다리,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악기, 모자, 왕관 등과 같은 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김하운 작가의 작업은 커피잔은 접시에 쓰러질 듯 기우뚱 서있고 흐르는 접시가 우유가 되며, 거꾸로 매달린 주전자가 팬던트 조명이 된다. 작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테리어 소품에 유머를 더해 독특함이 있는 오브제와 공예적인 양식인 ‘그릇(器)’에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릇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자영역의 확대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지만 도자의 독자적 특성인 그릇의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의 작업을 선보이고자 노력한다.



<도24> 김하운 「Alice in Wonderland」 2009



<도25> 김하운 「Outlery Chandelier」 2009

“일상생활에서 매일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그릇은, 그 기능 때문에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 쉽게 간과되기 쉽다. 본래의 기능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형태에 한계를 두고, 한정된 곳에 놓여 져야 하는 것에 대한 탈피를 통해 본래의 심미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습관적 존재들의 부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싶었다.” 14)

14) 김하운 「작가노트 中」 2010

권진희 작가는 기(器)의 음식을 담는다는 형식을 빛을 담는다는 형식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을 표현한다. 작품은 일정한 규격의 띠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생기는 색면과 빈 공간들로 완성해 나간다. 이처럼 생긴 불규칙한 패턴은 불필요함을 배제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도26〉 권진희 「Concoptual Core-1」 2010



〈도27〉 권진희 「Concoptual Core-2」 2010

색판을 길게 만들어 자른 띠를 동심원처럼 계속 쌓아가면서 생기는 색면과 빈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건축학적 구조를 느낄 수 있다. 틈 사이사이로 투과되는 빛은 또 다른 신비감과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부분적인 반복과 단순한 형태, 제한된 색상을 통해 대표적인 도자미니멀리즘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 Ⅲ. 작품제작 및 해설

####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키치미술안의 부적합성이라는 주제로 도자 조형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부적합하다는 형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다른 중간 매개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보다는 시각각적으로 즉각 전달 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한 성모상이라는 존재는 고귀하고 순결한 독자적인 이미지로 존재한다. 이에 다른 사물과 결합시켰을 때 대비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작품을 계획 하였다.

저급	고급
Craft	Art
醜	美
식기, 소변기	성모상
제품	작품
대중성	순수성

<표3> 본 연구에 있어 표현된 상반된 구조

작업의 초기 단계에는 성모상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며 사실적 표현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Transform Holymother(변형된 성모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성모상의 형상을 자르고 남자소변기 등, 대비되는 사물에 접합시키는 표현방법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형상화하고 그 형상위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가미해 그 표현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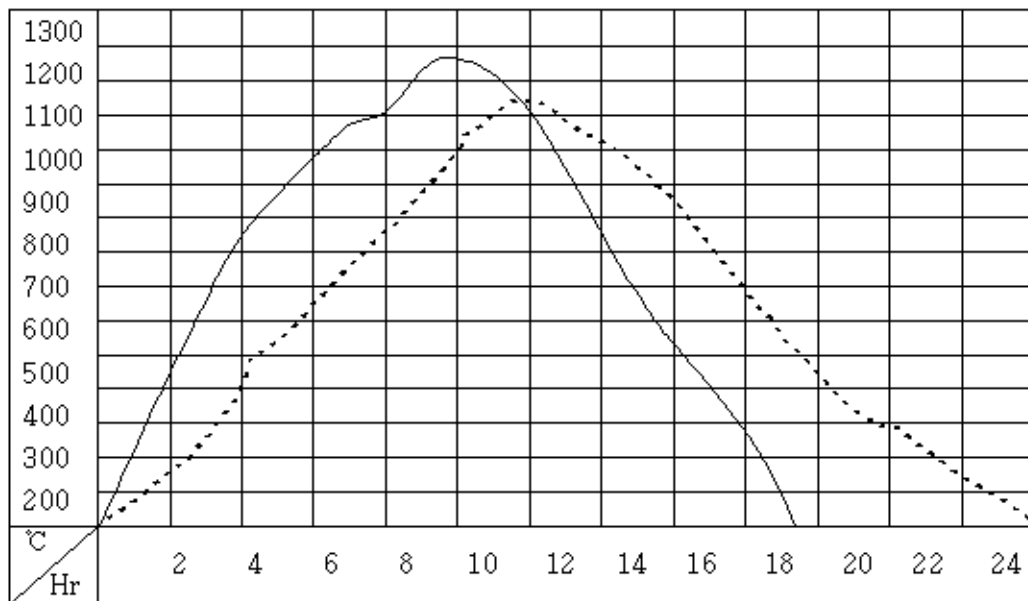
	성모상 본연의 이미지	상반된 이미지
형태	1인의 형상, 서있는 형상	군집형태, 누워있는 형태
의미	고결한, 깨끗한	패락적
장소	성전, 높은 곳 위치	더러운, 바닥
장식	흰색, 깨끗하고 단아한	화려한, 오방색
기능	비기능성 조각품	기능성, 실용성

〈표4〉 성모상 이미지 비교표

이를 통해 위 표를 바탕으로 작품 성형을 계획 하였다. 먼저 작업에 사용된 소지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 적합한 백자토(D1)과 슈퍼 화이트를 사용하였다. 백자소지의 선택은 소성 시 발색의 효과가 선명하고 기물의 크기와 소성온도를 고려한 결과 최적의 점토로 사용하게 되었다.

성형에 있어 성모상의 형상을 변형 시키되 한눈에 보았을 때 성모상 자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형상이 보여 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작업은 대부분 몰레 성형과 캐스팅 기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캐스팅 성형을 한 기물과 몰레성형을 한 기물을 접합시킬 때 발생하는 건조도에 의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유의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면장식으로는 첫 번째로 소지의 색과 대비 될 수 있는 장식기법을 선택하였다. 화려한 성모상을 표현하려 한 작품에는 색유와 전사기법이 사용되었으며 형태 본연의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에 있어서는 장식보다는 형태표현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단순화시켜 투명유로 마무리 하였다.



〈표5〉 소성 그래프 (도기, 자기)

소성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었다. 먼저 기본적인 800℃ 초벌을 한 후 투명유로 시유하여 전기 가마에 1250℃ 소성하는 식기의 가장 기본적인 틀에 맞추어 진 첫 번째 방법과, 작품 중의 하나인 남자 소변기를 사용하여 작업한 작품은 변기의 소지가 기존 존재하는 소지와는 달라 공장에서 소성하는 그대로(1150℃)24시간 이상 소성하고자 하였다.

작품들은 처음에 눈으로 감지했을 때에는 일상적 사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의미는 사라지고 기능적 요소가 없는 형태적 의미만이 존재한다. 작품 제작에서 성모상과 함께 차용한 사물들을 도자 제품 안에서 선택한 것은 본 연구가 도자 예술로써의 당위성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사물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업은 성모상과 도자제품을 결합시켜 도자라는 공예적 사물이란 소재를 이용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관습적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처음부터 물체는 도자제품으로 존재 했지만 실제 그 사물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관습적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 하였다.

이는 해석의 대상으로써의 가치, 아름다움이 결코 아니라 일상적 소외 시 된 사물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허나 예술작품의 경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상 사물들이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됨으로써 기존의 예술 가치로 자리매김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영역과 미적인 영역사이의 서로의 교체일 뿐, 그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현실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없고 예술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없음이다. 새로움이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뒤샹 또한 변기를 차용하여 미술관에 들여놓음으로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의 평등화를 주장했다.

이제 그 변기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다뤄지는 변기와는 다른 것이 되어 버렸다. 본 작품의 의도 또한 그러한 이유로 기성의 가치관을 벗어나 기존의 제도를 탈피하고자 함에 있다.

### 3. 작품해설

#### [작품1] Transform Holymother-1

작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모상이다. 작품은 가시적 지각에 의해 판단되었을 때 성모상의 흉상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형태적으로 식기의 구성요소인 손잡이, 수구, 뚜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본질적 기능을 잃게 하는 요소인 성모상이라는 오브제의 비 기능성 조 작품의 범주 안에 있는 형상에서 다른 일상적 사물을 결합시켜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미지를 찾고자 하였다.



<작품1> Transform Holymother-1 200 x 60 x h200mm

**[작품2] Transform Holymother-2**

**[작품3] Transform Holymother-3**

**[작품4] Transform Holymother-4**

접시라는 사물은 담는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성형된 접시 위에 성모상을 결합시킴으로써 성모상은 ‘담겨져 있다’는 형식으로 표현 된다. 허나 작품은 접시의 모습을 띄고 있을 뿐이다. 본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해 접시라고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도하여 연출 하였다.



**<작품2> Transform Holymother-2 400 x 400 x h100mm**



〈작품3〉 Transform Holymother-3 400 x 400 x h50mm



〈작품4〉 Transform Holymother-4 400 x 400 x h100mm



### [작품5] Transform Holymother-5

인간이 만들어 낸 물건들, 즉 인위적인 물건들은 때때로 부조화를 이루며 생산된다. 본 작품은 성모상의 1인의 형상을 탈피하고자 제작 되었다. 이에 군집의 형태를 의도하여 작품을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불레 성형으로 제작 된 식기류를 결합하여 진행 하였다.



〈작품5〉 Transform Holymother-5 80 x 80 x h150mm

### [작품6] Transform Holymother-6

화기의 이미지 중 성모상의 흉부를 과감히 없애 형상화 하여 부적합을 표현하려 하였다. 작품은 화기로 인식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모상의 몸체 형상을 하고 있다. 도자의 형태를 차용하여 사용함에 있어 특징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되, 입체적인 부분도 보여줌으로써 작품 디자인에 응용하여 연구하였다.



〈작품6〉 Transform Holymother-6 200 x 100 x h350mm

### [작품7] Transform Holymother-7

숭고하고 고귀한 성모상의 이미지에 남자소변기를 결합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작품은 변기라는 사물과 성모상에 대비되어 표현된다. 성모상의 깨끗하고 고결한 이미지와 변기의 더러움, 쾌락적인 이미지는 익숙한 해석이지만 이러한 역설적 표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영역에서의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작품7> Transform Holymother-7 450 x 450 x h1100mm

## V.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에 있어 연구자는 키치 미술과 도자라 불리는 영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하고 그에 반하는 진지한 예술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생각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예적 사물과 성모 마리아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결합하여 작품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었다.

키치의 대상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복합적 요구에 의하여 발생한다. 키치는 정확한 명사도, 형용사도 아니며 특정적 대상도 아닌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이러한 키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연구를 마무리 하며 키치는 표현 하는 데에 있어 받아들이기 쉽고 즉각적이 반응을 나타내는 익숙한 주제들을 차용하며 이미 검증된 조형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채택된 대상이나 기법적인 방법들의 확대 해석을 통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급과 저급의 분리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결과를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작품제작에 있어 키치 미술 안에 내포 되어있는 절충주의로 인해 서로 대립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결합 시킨다고 할 때, 그 사이 새로운 결합과 일관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게 되었다. 또한 작품 연출에 있어 처음에 의도하였던 다양한 공예적 사물과의 결합이 몇 가지로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것은 연구자의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키치를 차용한 미술이 공예적이며 일상적인 사물을 차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대중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도자예술이 진실로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 한다면 키치적 소재를 차용하던 차용하지 않던 간에 키치와 예술, 대중문화를 가려내는데 애쓰기 보다는 도자예술의 미적, 기능적, 역사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쓰임과 장식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공예적 강점을 연구하여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도자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 「앞의책」
- [2] 오창섭 「키치현상을 통해 본 사회문화적 기능」 1997
- [3] 아브라함 몰르 「키치란 무엇인가」 1994
- [4] 이영일 「키치로 현대미술론을 횡단하기」 2011
- [5] 김승혜 「종교학의 이해」 2000
- [6] 폴 발타 외 윤정임 역 「세계의 종교 이야기」 1989
- [7] 데이비드 폰테너 「상징의 비밀」 2001
- [8] 청주 공예 국제비엔날레 「현대공예의 용도와 표현」 2013
- [9] 최정은 「뒤샹의 섹슈얼리티」 2007
- [10] 김영민 「접은고양이, 흰고양이 : 공예에 대한 생각들」 2009
- [11] 하워드 리사티 「공예란 무엇인가」 2011
- [12] 최범 「공예문화비평」 2009
- [13] 펠러리 나이 「문화로 본 종교학」 2013

### 학위 논문

- [14] 김재원 「현대미술이 내포하는 키치표현과 대중예술의 상징성」  
전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
- [15] 심현주 「현대미술에 나타난 키치연구」 한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 [16] 류미애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주제로 한 도자 조형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1
- [17] 이동훈 「키치-오브제를 통한 일상과 예술의 유기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 [18] 김소연 「키치연구 : 사회 문화론적 접근」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4
- [19] 나유석 「근대적 공예가의 등장과 뒤샹의 "샘"이 오브제 도자의 출현에 미친 영향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 웹사이트

- [20] <http://Stdweb2.Korean.go.kr>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 [21]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22] <http://www.google.co.kr>
- [23] <http://www.naver.com>

## Abstract

Title :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Kitsch Art Incongruities  
-Focusing on the Holymother-

Lim, Bo Na  
(Supervisor Lee, Jung Suk)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mporary world centers upon the mass so much that kitsch art has become redefined as mass culture. While neglected things emerge in the past as the principal agents in contemporary societies, classes regarded as substandard in all areas of life are finally erupting in modern art. Kitsch art connected with mass culture displays various changes appearing in various aspects of life and transplanting a phase of mass culture in the form of exhibition while getting over past authority.

Hereupon, the study takes a look at the implication of mass culture in the category of art through general review of kitsch art. Also, the study aims to research the use and expression of the field of ceramic art connected with the conflicting medium of status of the Virgin Mary and express them in the author's artist language.

The second chapter Theoretical Background looks at the definition of kitsch art first. This chapter looks at the concept of the implied principle of inconsistency while review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fore investigating kitsch and modern art to help understand kitsch. On that

basis, the study continues to find out by which method the symbolism of the religious image of status of the Virgin Mary can become connected with art works.

The third chapter describes plans related to work production and detailed production procedure and presents explanation on the work to help understand the work with the basis of subjective thinking of the researcher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presented in preceding chapters.

Finally, the conclusion looks at the relationship with ceramic art by establishing characteristics and conceptual definition of kitsch with mass appeal as suggested in this study, which the last chapter reviewed in relation to the author' s art work after subdivision. Furthermore, the last chapter concludes by reminding the necessity for efforts in communicating with the mass and ceramic art with kitsch characteristics should not remain neglected in the sphere of art.